

##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 1. 8.(월) 11:00~12:00

2. 장소 : 학생처장실(대학본부 1층)

3. 참석인원 : 8명

- 당연직위원(3명): 이00(위원장), 이00 위원, 신00 위원

- 일반직위원(5명): 정00 위원, 장00 위원, 김00 위원, 정00 위원, 박00 위원

※ 배석 : 이00(간사), 정00

4. 불참인원 : 1명(이00)

5. 심의 안건

- 2018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6. 회의내용

- 위원장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회에 앞서 간사께서는 참석인원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00 :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총 위원 9분 중 8분 참석하셨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등록금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소개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각자 소개)
- 위원장 : 정00 팀장께서 회의 자료를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서로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00 :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회의 내용을 녹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정리한 후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개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 정00 : (회의 자료 설명)
- 위원장 : 네, 설명해주신 자료 중에 추가징수의 내용을 보시면 학부의 경우 증가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감소한 곳은 있어요. 대학원 중에 일반대학원에 심리학과, 의예과는 추가 징수하는 것이 폐지가 돼서 다 감소가 됐습니다. 다만 일반대학원에서 5개 학과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학부인 경우에는 학과별로 추가징수로 인해서 증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일반대학원에서 5개 학과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약간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대학 해당부서에서 등록금 책정안으로 내놓은 것이 동결과 1.5%, 1.8% 그리고 유학생 경우에는

3%, 5% 조정하면 얼마만큼 등록금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 20쪽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00 : 외국인 학생을 3% 올린다고 하는데 왜 외국인학생만 올리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장 : 일단 외국인 학생은 법률에서 제한하는 지난 과거 3개년도의 물가 상승률의 평균의 1.5배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00 : 하나의 예시입니다. 외국인 3%, 5%는 대학에서 하나의 예시를 드린거고, 이 안중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건 아니고, 2.5% 등등 다른비율도 가능한 것입니다.
- 정00 : 외국인 학생들도 저희랑 같이 수업을 듣고, 우리와 같이 수강신청을 하는 같은 일반 학생인데 왜 외국인 학생만 3%를 더 인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신00 : 인상을 할지말지, 위원장께서 말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 1.5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한 것 뿐입니다.
- 위원장 : 정00위원님 말씀처럼 외국학생도 한국학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등록금 책정을 하면 좋겠는데, 한국학생들을 올리면 국가장학금을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올릴 수 없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인원이 감소가 되고, 물가상승도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 유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학생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면 미국에 가서 내는 등록금이 2배, 3배 되요. 왜냐하면 번 돈의 일부를 우리가 소득세로 내잖아요. 그런데 외국사람들은 그렇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등록금을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점을 한번 고려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 정00 : 등록금을 인상시키면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데에 불이익이 있나요?
- 위원장 : 학부 장학금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요. 1유형은 완전히 소득분위로 해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고, 대학에서는 대응자금을 내야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대응자금 즉, 국가지원금이 많아요. 그럼 그만큼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가는 겁니다.
- 정00 : 그게 그럼 불이익이 더 크겠네요. 장학금 몇%올려서 2억 더 받느니, 차라리 동결을 해서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방법이 여러모로 훨씬 더 좋습니다.
- 신00 : 그래서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학부 등록금에 대해서는 동결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 장00 :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이 동결,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 00 : 학부는 어떤 재고의 여지가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 위원장 : 네 맞습니다. 그냥 동결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원 그리고 유학생들의 등록금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6페이지 보시면 대학원이 16, 17년도에 계속 조금 올렸어요. 외국인은 전년도

에 10%를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학원도 신입생 지원율이 더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이 오르면 지도교수분들이 연구비를 따서 보완을 해주는데 그 부분이 지도교수에게 부담으로 오는 부분도 있고, 대학원생 부족으로 연구력이 떨어지면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도 작년에 등록금을 올려서 외국인 신입생 지원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00 : 10%를 인상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 외국인 유학생지원센터 활성화 하는데 예산사용에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 김00 : 그래서 어떤 게 지원이 됐나요?

○ 정00 : 유학생지원센터를 '17년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지원되었고 학부에서 받는 일반 학부장학생보다 외국인장학생이 적어요. 투자비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학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 투자비의 거의 전액을 다 외국인학생들에게 사용되었고 대학원생 인상분도 대부분 장학금으로 투자하였습니다.

○ 장00 : 만약에 이번에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3%든 5%든 인상을 한다 라고 하면, 인상되는 예산이 외국인에게 가는 건가요?

○ 위원장 : 그거는 재무과(재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정00 : 재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반영 될거라고 보며 우선 외국인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신00 : 대학재정은 대학회계로 세입한 후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인상한 만큼 그대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식화된 것은 없습니다만 인상된 부분에 더 주력을 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재정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과에서는 늘 입에 달고 다니는게 '재정상황이 어렵습니다'를 얘기를 드리는데,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이 폐지되어 학교전체 재정으로 보면 7~8억 정도의 재정이 손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입학정원을 계속 해서 감축을 했는데, 2020년까지 감축된 인원이 계속 누적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등록금수입이 감소가 되기에 학교 재정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국가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이 있든지 우리가 등록금을 인상한다든 지하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수입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대학원하고 외국인을 1안을 동결로 한 것은 외국인유학생과 대학원생 인상을 하였을 때 예산 증가폭은 2억에서 2억5천 정도로 예산이 되는데, 수입 증대된 것과 우리가 대학등록금을 동결을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해 보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부,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모두 다 동결시켰다는 홍보효과, 신입생모집에 유리한 측면과 국제정세 등을 고려하여 1안으로 제안드렸고,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유혹을 가장 많이 받는게 재무과입니다만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고려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안을 동결로 했습니다.

- 김00 : 저는 학부생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인하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졸업기준 학점이 140에서 130으로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적게 들으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정00 : 18년도부터는 가능하면 10학점 정도를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N분의 1로 등록금을 해서 학비나 교육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00 : N분의 1이 아니더라도 강사비용이라든지 교수님들에 대한 비용 그리고 관리비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등 절감이 될 것으로 보며 그런만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정00 :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학점이 줄다고 강사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 책정액과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 신00 : 맨 하단에 보면 계절학기 같이 학점별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부분을 예시인 것이고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학점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점이 줄어 든다고 했을 때 있는 교수님들이 전공을 폐지해 버리는게 아니라고 보기에 학점 축소는 등록금 금액에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 이00 : 학생회장이 생각하는 개념이 일반 학생들도 같은 생각일 수 있지만 실제 운용과정에서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점을 적게 신청한다고 해서 강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단과대학이 감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신00 :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학점을 낮춘다고해서 도서관 운영비가 감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강사료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학내의 시설 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 위원장 : 학점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을 해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비용이 줄어드는 사유는 아주 적을거라 생각 됩니다.
- 장00 : 입학정원 감축이 학부만 해당되는 겁니까?
- 정00 : 학부만 해당됩니다.
- 신00 : 여기서 동결이라 함은 사실상의 인하예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쫓아가는 식이기 때문에 동결은 사실상의 인하입니다.
- 이00 : 그동안에 각각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최근에서 인상을 했는데 이것이 각각 그 해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고 그때 상황이 맞았겠지만 한꺼번에 인상하여 국제교류본부 및 대학원 자체 내에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고,

최근 2개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 정00 : 외국인의 경우에 저희 학교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타대학교 혹시 등록금 수준이나 이런 게 비교해서 어떤가요?
- 정00 :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인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립대학만 따지면 작년에 4개 대학이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희들 대학등록금같은 경우가 정책적으로 4~5위 정도하는데요. 4등과 6등의 격차가 2만원정도 수준입니다. 가장 큰 대학과 가장 작은 대학의 차이점은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데가 서울대학교고요. 가장 적은대는 제주대학인데 제주대학과 서울대학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충남대를 봤을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통화를 해본 결과는 지금 대학원같은 경우에 3개 대학이 올리려고 하는 게 사실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2~3개가 올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북대학이 작년에 많이 올려서 올해는 동결 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는 대학원은 1.8%, 외국인같은 경우도 약간은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 많은 대학은 아닐 것 같아요.
- 김00 : 제가 학부생 등록금 인하를 얘기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 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졸업기준 학점이 내려갔으니까 등록금이 낮아지겠지하고 생각하며 동결을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 사실 동결은 인하나 마찬가지로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동결의 의미는 물가수준 만큼 올리는 게 동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결을 물가수준만큼 인하된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 김00 :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물가수준 쪽으로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 회의내용을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봐야죠
- 이00 : 금년에 동결이라 하더라도 금년도 동결을 했다는 원인들을 생각하면서 내년 등록금채정을 생각하는 그런 등록금채정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서 2016~7년도에 등록금을 계속 올리다보니 이게 분명히 입학하는 수요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이야기고, 외국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해서 2018년도에는 동결처리해보고 과연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고 이게 사실 물가수준만큼 올려야지 이게 동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실제적 동결의 의미로는 1.2%정도는 올려야 작년 수준을 유지할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이나 외국인 쪽에서 일단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니 동결로 하되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이게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내년에 우리가 등록금 정책을 책정을 할 때 참고자료로 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은 사실은 재무과예요.

- 정00 : 재무과가 세출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 앞서서도 설명을 간단히 드렸지만 내년에도 학교에서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이 1.2%이지만 지금 우리 대학의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16.4%정도 최저임금이 올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부담이 크지만 등록금인상을 하여도 2억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받는 거보다 실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대학원이나 외국인학생 측면에서 많이 재기가 되고 있지만 1년동안 학교 살림살이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올해 학부신입생입학금 폐지를 포함하여 동결, 다만 대학원이나 외국유학생에 대하여는 금년 시행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확 올리는 것보단 매년 물가상승률 등 고려 1%라도 계속 올려가는 정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00 : 4페이지의 마지막 표를 보면 등록금을 동결하고 다른 부분에서 인하하고 했어도 15년도에서 16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등록금자체는 감소된 수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세입총액을 보면 수입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거든요. 이게 다른 부분이나 정부 측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건지요 궁금합니다.
- 정00 : 세입총액은 제일 위에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어느정도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교육비는 등록금도 있고 국가보조금도 일부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세입예산액 중에 예전에 수업료하고 입학금이 있었어요. 법이 바뀌면서 대학회계에 들어오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대학의 등록금 재정 수입과 연계해서 보지 말고, 우리 대학에 대한 능력은 앞에 나와 있는 등록금, 이것이 순수한 우리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 신00 :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국고지원비, 그 다음 국가 재정지원사업이 있을 거고, 세액총액이 늘어나는 해마다 국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인건비들이 해마다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반영이 돼서 국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또 우리 학교에서 국가 재정지원사업에서 잘 해서 선정이 되면 그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해마다 국가 재정지원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재정지원사업을 설계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고에 대한 것은 인건비 같은 것이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전기,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이 있는데, 그것도 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공공요금 인상분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 김00 : 등록금을 동결했을 때 학부생들이 느꼈을 때는 인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조. 이수학점이 10점이나 내려갔는데 왜 등록금이 그대로냐 그랬을 때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 이미지가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 인하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설명했듯이 물가상승률 등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00 : 시간강사도 강사료라는 것도 임금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동결을 하면 그걸 감당을 하기가 어렵죠.
- 정00 :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2학기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강사료를 조금 절감하자는 공공요금 절감 등의 여러 가지 절감안을 실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학점절감안도 나와서 우리가 그걸 따져봤어요. 교육과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강좌를 줄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강좌수는 그대로이고 강의를 듣는 학생 수만 줄어듭니다. 당초에 50명이 들었던 학생이 40명으로 줄어드는 수준이지 그 강좌를 못 폐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여 학칙으로 정해져 있고, 매년 그걸 다 정하고 가야됩니다. 그럼 각 대학별 학과별로 과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뺄 수가 없습니다. 전공에 문제가 생기고 교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살아있고 즉 한명을 가르쳐도 돈은 똑같이 받아요. 150명 이상의 대단위 강좌가 조금 플러스 수당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교육과정은 거의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130학점으로 줄어도 개설되는 교과목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00 :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맞습니다. 학생들 입장도 있고,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고 저는 우선 올해 동결해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내년 등록금심위 위원회에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00 :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에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오히려 인상의 부분을 늦춰서 만약에 꼭 해야된다면 내년에 한번 더 고민해 보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현재는 재무과에서 힘들겠지만 감안하셔서 가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2018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저는 학생들이 환영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원이나 유학생측면에서 환영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어떻게는 절감해 보겠다는 각오와 함께 동결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의사항을 종합을 해보면 **2018학년도 학부·대학원·외국인유학생 등록금은 동결하는 결로** 하고 다만 2019년도 등록금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물가수준 상승률 정도는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점차적인 반영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 다시 한번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학년도 등록금 심의는 "학부생 입학금 폐지하고 모든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2차, 3차 추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일동 :(대답없음).
- 위원장 : 그러면 1차 오늘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 제							
담당	조민건	팀장	이종희	과장		등록금 심의위원장	이희숙
협조	총학생회장						
	김홍씨						